

문체부,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내년 6940억원 규모 금융지원

용자예산의 70% 선제적 시중 공급... 수시 신청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는 내년 관광업계를 위해 총 6940억원 규모의 직간접 금융(신규융자 5940억원·상환유예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위해 관광기금을 활용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자금 수요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용자예산의 70%(4200억원)를 선제적으로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통상 관광기금 용자금의 70~80%(3653억원, 37년 평균)는 시설자금으로 쓰였다. 그러나 올해는 운영자금 수요가 폭증(2019년 985억 원 → 2020년 4166억원, 약 4.2배)했고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처음부터 운영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집행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종전에 용자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관광유희음식점, 외국인전용유형

음식점, 관광캐노피를 운영하는 자도 운영자금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종전에는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내에서 용자지원 한도를 설정(최고 30억원)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축소 등으로 대부분 업체의 영업비용이 감소된 것을 고려해 최근 3년 기간 중 영업비용이 가장 높았던 회계연도 금액의 50%를 최대지원 한도로 정할 수 있다.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종전에는 분기별 1회씩(연 4회) 모집함에 따라 신청 이후 용자금을 받기 위해 대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수시로 신청을 받고 매 월단위로 용자 심사를 진행해 용자금을 받기 위한 대기시간이 그만큼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내에 전담인력 4인이 투

입된 상시용자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관광기금 운영자금 용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지역별 관광협회 등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설자금은 15개 용자취급은행(영업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용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조건은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x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신규 용자지원 외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관광기금 용자 원금상환일이 도래하는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관광기금 용자 제도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경북도에서 운영 중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남원으로 이전한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남원 이전... 2년간 업무

현재 경북도에서 운영 중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남원으로 이전한다.

남원시는 국내 7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관련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는 추진단의 사무국이 남원으로 이전해 내년부터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남원 유곡리와 두리리 고분군을 포함한 7개 고분군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산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합천 육전 고분군 등이다. 협약은 이들 기초자치단체와 전북도, 경남도, 경북도 등이 3개 광역자치단체 등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추진단은 등재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남과 경북에 이어 앞으로 2년간 남원에서 등재 추진업무를 이어간다. 그간 등재신청서 작성과 연구자료집, 화보집 제작, 통합보존관리계획,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고 내년에는 세계유산등재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현지조사(9월 예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완주 시장은 "기문국의 역사가 살아있는 남원에서 추진단이 업무를 추진하는 만큼, 가야시대의 대표 유적인 가야고분군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문체부, 스마트 도서관 조성 지원 예산 2배 확대... '20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는 내년 '스마트 도서관 조성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2배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0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엔 20억원으로 늘어난다. 32개 시·군·구에서 지능형(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이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함에 따라 국민들이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 하지만 '지능형(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휴관 상황에서도 도서대출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었다.

스마트도서관은 자동회기기에 도서(400~600권)를 비치해 이용자가 직접 대출·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내년 스마트도서관 조성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경남 등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과 연계해 지능형(스마트) 도서관을 만든다.

세종은 중앙공원과 연계한 장소에, 전북(남원)은 관광지과 연계한 캠버리 캠핑장 전(해남) 등의 지역에서는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 지능형(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뉴시스

'주물럭'·'두루치기'·'잡채'·'순대'... 외국어 번역 '알기 쉽게'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기준 발간 영어·중국어·일어 등 4가지 번역



'주물럭', '두루치기', '잡채' 등 한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들에게 의미가 전달되도록 번역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번역을 위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한국관광공사는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책자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기준'을 다음달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여 년간 공사는 방한 외국인의 언어 불편 해소를 위해 음식명을 외국어로 번역해 홍보하고, 외국어 메뉴판을 보급하는 사업을 펼쳐 왔다. 하지만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외국어 번역을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현실에서 통일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해 외국인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공사는 기존 외국어표기 용례사전과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 교수진의 참여와 한국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전문가들의 감수 하에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기준'을 발간했다. 번역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간·번체), 일본어 4가지다.

이 기준은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데 초점을 뒀다.

따라서 음식명에 한자가 그대로 번역돼도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을지 '잡채'와 '순대'를 의미하는 한자어는 적절한지 등과 같은 문제들에 매우 깊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

또 음식명을 기계적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가급적 식재료, 조리법, 맛 용기 등의 특성

/뉴시스

한국관광공사는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책자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기준'을 다음달 발간한다.

을 살렸고 문화 차이로 인한 오히려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아울러 '비빔밥', '김치', '고추장', '박격리' 등 이미 한국어 명칭 그대로 해외에 알려져 있거나 고유명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한국어로 그대로 살려 표기하고 음식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표기 기준은 내년도 1월 중 공사 음식관광 플랫폼(www.foodtrip.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1만2000개에 이르는 음식명 외국어 번역 데이터도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사는 표기 기준 책자를 전국의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뉴시스

부안 마실영화관, 재개관 연기

부안군은 코로나19 사태로 휴관했던 마실영화관을 재개관하기 위해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부 시설 정비를 하는 등 재개관 준비를 마쳤으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재개관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마실영화관은 2014년 작은영화관 설립사업으로 개관하며 매년 관람객이 늘어내며 성공적으로 흑자 운영을 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임시휴관한 위탁업체(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가 운영권을 견디지 못하고 위·수탁 계약을 포기하면서 장기간 문을 닫았다.

부안군은 영화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실영화관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민간위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쉐탕스코를 수탁자로 최종 선정하고 민간위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12월에 재개관하기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부안군에게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안군 관계자는 "연기된 것이 아쉽지만, 준비에 시간이 더 생길 만큼 재개관을 하기 전까지 방역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보완하겠다"고 하면서, "코로나 19로 지친 부안군민들의 문화·감성 해소와 코로나 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